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제주학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기록창고로서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10월 4일(화) 15~18시

제주학연구센터 자료실 **‘살레’**

제주시 임항로 278, 2층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제주학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의 기록창고로서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10월 4일(화) 15~18시

제주학연구센터 자료실 '살레'

제주시 임항로 278, 2층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인사말

탐라 제주의 자료를

차곡차곡 ‘늘어 가는’

아카이브 협력체계 만들기

제주에는 한반도에서도 사라진 한국 고유의 문화가 오롯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제주인들이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어 그 고유성과 전통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일들은 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듯합니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는 2014년부터 제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도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들이 제대로 알려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번 포럼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네트워크 포럼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지혜와 노력을 모아 주셨습니다. 기초발제로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 제주 곳곳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분들께서 아카이브를 공통분모로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주대학교 허남춘 교수님께서 흔쾌히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네트워크 포럼이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를 극복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더욱 발전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제주학 아카이브에 대한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어 제주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이루고, ‘제주다움’을 기록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제주학 자료 구축과 연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참석자 제주 아카이브 관계자 및 연구자

14:30-15:00 등록

15:00-15:10 개회식

1부 기조발제 및 토론

(사회: 조정현 전문연구위원)

15:10~15:40 기조발제 지역학 아카이브의 가치와 미래 전망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장)

15:40~16:10 발제에 대한 질의 토론 참석자 전원

16:10~16:20 휴식 시간

2부 사례 발표 및 종합 토론

(좌장: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

16:20-17:00 공공기관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공공기관 아카이브 관련 참석자

17:00-17:30 민간단체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민간단체 아카이브 관련 참석자

17:30-17:50 자유토론 및 종합

17:50 폐회

기조 발표

지역학 아카이브의 가치와 미래 전망	12
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장)	

사례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28
세계유산본부	29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31
제주도립미술관	34
제주문화원	37
제주문화예술재단	44
제주4·3평화재단	4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5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52
서귀포문화도시센터	54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57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59
대정읍 상모리 기록관	62
제주학연구센터	64

기조발표

지역학 아카이브의 가치와 미래 전망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지역학 아카이브의 가치와 미래 전망

함 한 희
무형문화연구원 원장

1

목 차

1. 21세기 아카이브 운동의 확산 배경
2. 지역학과 아카이브
3. 지역학 기록 방법
4. 지역학 아카이브: 미래를 위한 문화적 자산
5. 지역학 아카이브의 조건
6. 맺음말

2

1. 21세기 아카이브 운동의 확산 배경

- ‘역사의 중요성’과 ‘사실 또는 진실의 공개’ 그리고 ‘정보공유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출발한다
- 역사란 원래 후속세대들이 쓰는 것이고, 그 작업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기록물들을 수집·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3

2. 지역학과 아카이브

- 지역민들의 공동의 경험 및 개인적 경험 등이 당시의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 토대가 된다.
- 현존하는 역사 경관 및 그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기록물, 이야기 등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민의 역사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사람들의 삶의 경험은 다양했고, 그 경험의 층위를 되도록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지역아카이브가 많아져야 한다.

4

2-1. 공공기록물법의 제정

- 1999년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법)이 공포되면서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체계가 서기 시작했다.
 - 제 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정하여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2-2.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양산 시대

- 국가기록원
- 국사편찬위원회
- 4.3연구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고예술정보관
- 민족문제연구소
- 대통령기록관
- 김대중도서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 구술사연구사업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

6

해외사례 1: 뮌헨 시립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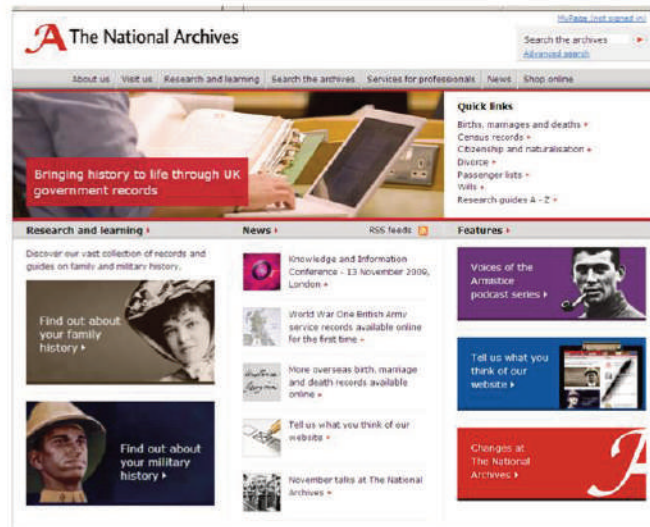
Munich City Archives
Stadtarchiv
Das Verwaltungsgebäude des
Stadtarchivs an der Winzererstraße.
Munich City Archives
Winzererstraße 68, 80797 München
Tel. 233-0308, Fax 233-30830
Email stadtarchiv@muenchen.de
Internet www.muenchen.de/stadtarchiv
Reading room: Mon, Tue, Thu 9 am-6 pm; Wed & Fri 9 am-12 pm

[계속]

- 유럽의 시립 아카이브 가운데 문화예술 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시의 행정관련 문서를 수집하는 외에,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관련 소장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현재는 유럽 안에서도 시의 아카이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 시민 문화 예술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생산된 자료를 시립아카이브로 보내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문서 보다는 시민들로부터 받는 문서의 양도 50%가 넘는다.
- 아카이브 사진 수집은 1,800,000 장으로 시의 경관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사진들이 다.
- 이곳에는 수장고, 행정실, reading room, 강의실 등이 있고, 2동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 매년 자료가 늘어서 새 건물을 확장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로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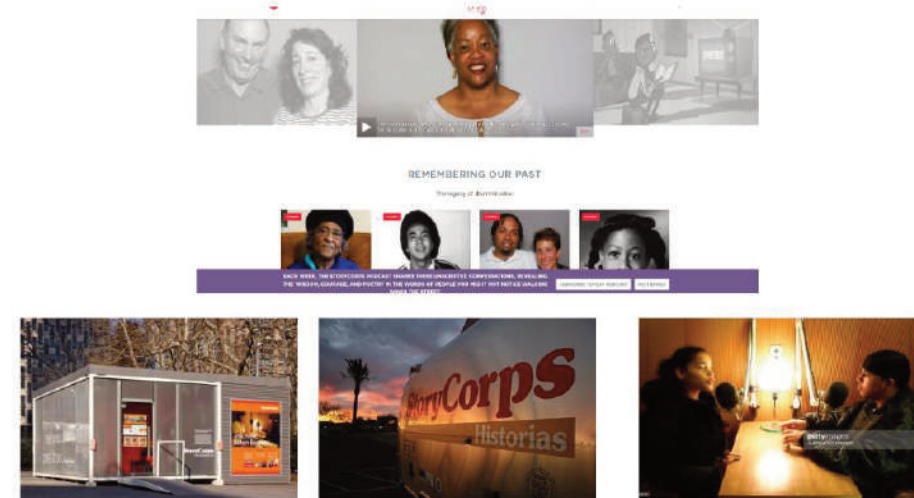
8

해외사례 2: 영국의 The National Archives <http://www.nationalarchives.gov.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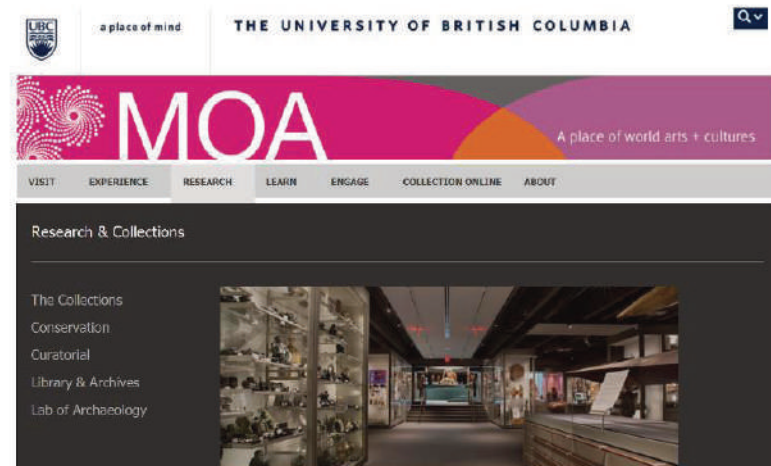
9

해외사례 4: 미국 뉴욕시의 Story Corps Project



11

해외사례 3: 기억/추억에서 공감/영감으로



10

[계속]

-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
- 일상적 기록의 미래적 가치의 사례
 - 미국 뉴욕의 스토리코어 프로젝트
 - 라디오 피디 출신의 데이브 아이세이는 '이야기집단'(Story Corps)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
 - 3만5천여 건의 이야기 채집
 - 돈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고 모든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를 나누고픈 누군가와 녹음부스를 방문한 뒤 테이블에 마주 앉아 40분 동안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CD에 녹음돼 1장은 당사자에게 주고, 1장은 미국 의회도서관 민중생활센터 아카이브에 보관된다.

12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



[계속]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2012-2018}
 - 가까운 옛날을 기록
 - 민중의 구술생애사 채록
 - 48권의 민중열전, 800여건의 구술생애사
- 무엇을 기록했는가?
 - 사라지는 것들
 -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
 - 생활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
 - 의미가 있는 것들,

14

3. 지역학 기록 방법

- 조사와 기록의 시각의 중요성 숙지
 - 지역중심의 관점 vs. 중앙중심의 관점
 - 포괄적 접근의 중시
- 지역학 기록 방법론 개발
 - 기록 대상의 확장 (유형과 무형문화, 자연, 경관 등)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종합적 조사
 - 기억의 공동체와 기록의 공동체 [윤택림 인용]
 - 개인적 경험의 일반화

15

[종합 조사의 예]



16

구술 채록

제 1장 성남시, 두재회의
계획도시의 역사

제 2장 노동자가 기억하는 현장,
성남의 풍경

제 3장 성남 스케치, 제 1공단의 활력

제 4장 이제 더 이상 배운 기술,
한국파이롯트의 원동력

제 5장 한국파이롯드 공장의 실상,
공작실의 두 노동자

제 6장 생산의 여성노동자들,
80년대 원조 워킹우먼들

제 7장 성남, 우리 모두의
타향살이와 그 설움

제 8장 기계보다 빛나던
여성노동자들의 수작업, 펜의 완성

제 9장 성남,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과 투쟁

제 10장 태국 문구류의 80%를
차지하는 파이롯드

제 11장 한국파이롯드의 현장,
공장의 미래

건축 기록

대지위치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457

대지면적 6,791.28㎡

지 역 공작원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 도 공장, 창고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097.17㎡

건 폐 륜 30.88%

연 연 적 6,791.28㎡

용 적 륜 92.78% (용적률 산정 연면적 : 6300.98㎡)

건축년도 1979년 6월

사진 기록

2. 공간사진

3-1. 기억의 터, 집단기억

-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터(공간)'**
 - 인간의 의지와 여러 세기에 걸친 노력에 의해 가장 뚜렷한 상징으로 남아 있는 장소
 - 구체적인 공간(박물관, 궁전, 묘지 등)일 수도 있고, 상징기제 (기념제, 순례, 문양 등) 또는 전달매체 (교과서, 자서전, 협회 등)와 같이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
 -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임.
 - 기억의 장소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기억의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
- **모리스 알바쉬 '집단 기억'**
 -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억인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유된다. 상징적 기호와 행위를 통해 여타 집단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억"을 가지게 된다.

3-2. 기억의 공유와 집단정체성

- 시민의 **공유된 기억**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문화와 시대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 어두운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
-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
- **기억의 터를 발굴**하는 작업

22

4. 지역학 아카이브: 미래를 위한 문화적 자산

- 아카이브 중요성 인식
- 문화와 교육자원이 있는 아카이브 인기가 날로 증대
- 학술연구, 출판 및 기타 콘텐츠 사업의 보고로 인식
-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 탈바꿈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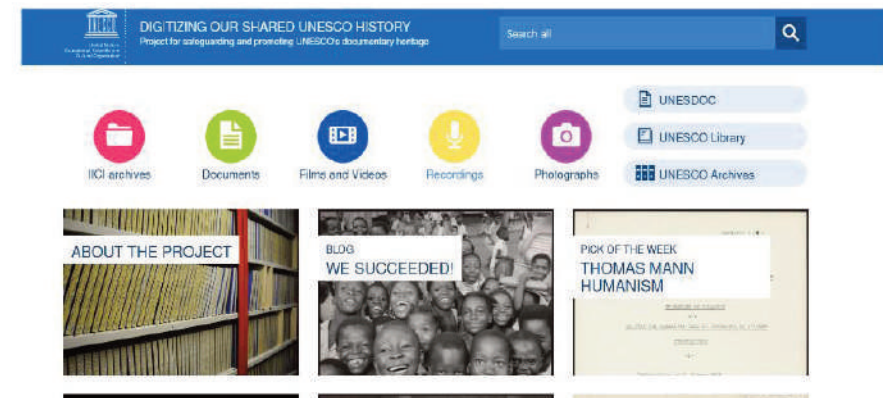
4-1. 기억의 공유와 집합 기록의 의미는?

- 공동체 형성과 통합
 - 기억의 공동체, 기록의 공동체 논의
- 정체성의 확인
 - 기억과 기록을 토대로
- 작은 역사의 기록
 - 지역학의 중요성
- 후손을 위한 미래유산적 가치
 -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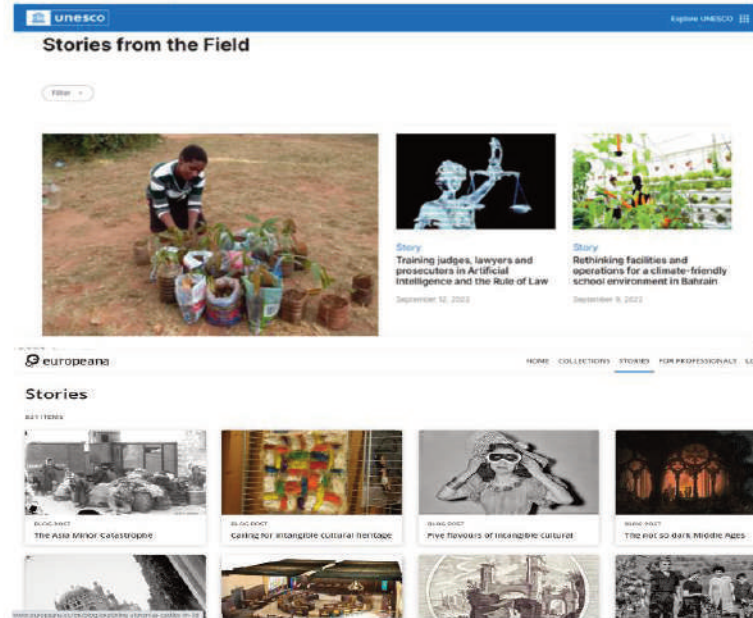
24

[사례]

Digital Movement : safeguarding, raising-awareness, sharing, promoting and viability



[사례] Collecting Stories: stories as important forms of cultural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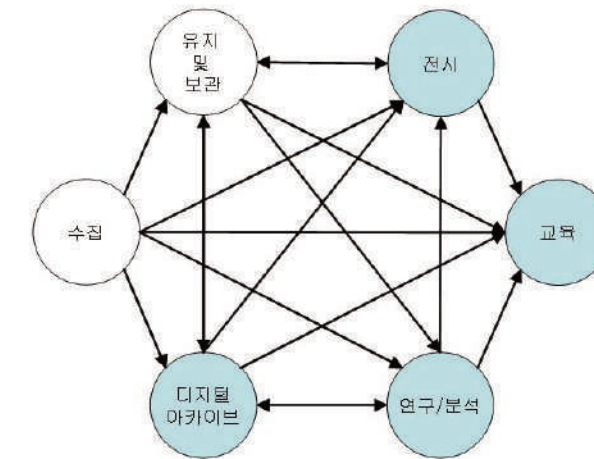


5. 지역학 아카이브의 조건

-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 자료수집, 기록과 아카이빙의 통합구조
-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 새로운 지식관리의 차원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를 위한 개방적인 아카이브 정책

27

5-1. 아카이브의 이상적인 모델



28

6. 맺음말

- 다양한 계층,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역학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 민간기록물의 공공성을 부여하여 후세대를 위한 연구와 교육 자료의 기반을 구축한다.
- 정보의 민주화 내지는 역사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아카이브 선진국에서도 디지털화를 문화 선점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21세기의 새로운 아카이브즈 문화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의 아카이브 역사는 짧지만 공공 및 민간기록물의 양산체제를 질적 수준의 제고를 통해서 새로운 아카이브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 지역학을 통해서 생산되는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정비한다.

25

24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서귀포문화도시센터

민간단체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대정읍 상모리 기록관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아카이브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사례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제주도청 총무과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

☐ 비전자기록물 보유 현황('22. 8월말 현재)

(단위: 권)

유형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합계	121,716	86,966		34,750				
		41,363	36,644	8,959	12,889	19,594	1,641	626
일반문서	97,480	19,870	35,555	8,778	11,468	19,549	1,634	626
카드	70	15	54	1				
도면	1,593	340	989	124	106	32	2	
시청각	13,431	11,996	46	56	1,315	13	5	
행정박물	5,531	5,531						
민간기록물	3,611	3,611						

<세계유산본부>의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전망

세계유산본부 이지은 학예연구사

1.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현황

-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2003년부터 영상기록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 1개 종목에 대해 기록
 - *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아카이브 추진하며 도에서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만 기록
- 202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21개 종목에 대한 영상 기록을 완료하였음
 - * 도내 무형문화재 : 28개 종목 (국가지정 6, 도지정 22)
- 2022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귀리겉보리농사일소리에 대해 영상기록 추진 중으로 내년 5월말 완료 예정

2.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 무형문화재는 보유자의 말과 손짓으로 그 기예능 및 지식이 전승되기 때문에 그 특성상 효율적인 기록과 보존을 위해 영상 기록 필수적임
- 제주도에서만 2021년 3명, 2022년 9월 현재 2명의 전승자가 별세하는 등 무형문화재 기록의 시급성에 비해 예산 및 시간상의 한계로 연 1개 종목에 대한 기록만 이루어지고 있음
- 기록된 영상이 단순히 열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3.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기록된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 또는 공개 서비스가 필요함
- 다만, 무형문화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승자 개인의 개인정보나 초상권에 대해 사전 동의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희화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백지현 학예연구사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 박물관 소장자료 현황

구분	수량(건)	비고
고고민속	7,172	제주 역사, 민속 관련 자료
자연사	31,234	동·식물, 지질 관련 자료
합계	38,406	

○ 최근 3년간 자료 수집 현황

연도	구분	계	수집 및 구입			비고
			기증	구입	자체수집	
총 계		1,041	689	249	103	
2020	소계	290	143	106	41	
	고고민속	86	60	25	1	
	자연사	204	83	81	40	
2021	소계	363	303	-	60	
	고고민속	302	302	-	-	
	자연사	61	1	-	60	
2022	소계	388	243	143	2	
	고고민속	386	243	143	-	
	자연사	2	-	-	2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

- 구입, 기증 등으로 수집된 자료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뮤지엄(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emuseum.go.kr) 으로 자료검색 서비스 제공
-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진 자료 제공
 - 2019년 기증자료: <제주의 돌담> 사진 이미지 140점
 - 2019년 구입자료: <제주의 포구> 사진 이미지 184점
- 조사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 제주 민속자료 조사보고서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 2013년부터 매년 1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역내 생활도구, 생산도구 등 조사
 - ※ 발간 책자: 2013년 애월, 2014년 조천, 2015년 구좌, 2016년 안덕, 2017년 한경, 2018년 성산, 2019년 대정, 2020년 남원, 2021년 표선, 2022년 한림
 - 자연사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 제주의 생물자원의 다양성 조사하여 매년 자연사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
 - ※ 발간 책자: 2013~2017년 한라산 계곡의 원류를 찾아서, 2018년 새들의 천국 제주도, 2019 제주도 곤충 총서, 2020년 제주 바다를 누비는 매, 2021년 제주도 나비와 문화, 2022년 제주도 백로류
- 역사자료총서 발간
 - 2017년부터 매년 제주 관련 역사자료 선정하여 완역본(完譯本) 발간
 - ※ 발간 책자: 2017년 <이별의 한 뼘 수심 넓은 바다처럼 깊은데>, 2018년 <목도에서 경쇠 치던 벼에게 보낸 편지>, 2019년 <빠어난 절역에서의 유람은 평생에 제일일이더라>, 2020년 <탐라록>, 2021년 <탐라장계초>, 2022년 <남환박물>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 박물관 소장 오성찬 구술채록 자료 디지털 변환 작업 진행
 - 사업명: 국립중앙도서관 <2022년도 문화예술기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

원 사업>(2022.6.~11.)

- ※ 오성찬 구술채록 자료: 작가 오성찬(1940~2012)이 1985~97년까지 마을 현지 조사시 녹음한 주민 인터뷰 녹음 카세트테이프 521점
- 디지털 변환 작업 후 대국민 공개 및 구술채록 자료집 발간 예정
-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 아카이브 관련 전문 인력의 부재 및 예산, 장비 부족
 - 박물관 본연의 기능(전시, 연구, 교육)에 업무가 집중되어 아카이브 구축 미비

4. 제주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제주도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자료 공개시 저작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음

<제주도립미술관>의 미술자료 아카이빙 구축사업

제주도립미술관 강수지 학예연구사

1. 제주도립미술관 기록물 보유 현황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개관일	2009년 6월 26일
시설현황	구분	시설 수/총면적	구분	시설 수/총면적
	부지면적	38,744㎡	도서실	1실/ 105.63㎡
	건물 총면적	7,807㎡	교육실	3실/ 96.56㎡
	자료실	1실/ 105.63㎡		
소장자료 현황	소장작품	961점		
		예술관련 국내외 도서		7,254권
	소장자료	도록, 리플릿, 포스터 등 미술 자료		2,000건
		연속간행물 등		1,500건

2. 미술자료 아카이빙 구축 현황

□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미술자료 아카이빙 구축지원 사업

○ 연도별 추진실적

-2020. 9월~2021. 1월

- 공모사업 선정된 후 파견 아키비스트가 진행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자료 385개, 수집자료

도내 국공립 1,133개, 도내 민간 385개 기술, 라벨링 및 포장 등 일부 진행

- 2021. 9월~12월

- 학예인턴 진행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자료 30건, 수집자료 도내 국공립 117건, 도내 민간 3개 기술, 라벨링 및 포장 등 일부 진행

- 2022. 6월~12월

- 공모사업 선정된 후 파견 아키비스트가 진행 중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아카이브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자료 기술, 라벨링 및 포장 진행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등 자문 후 수집자료 분류기준 수립
- 도내 유관기관 미술자료 수집계획 수립

3. 아카이빙 구축의 한계와 발전 계획

□ 제주도립미술관 미술 자료 아카이빙 구축의 한계

- 미술 자료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상시 인력 배치 필요
- 미술 자료 아카이빙 구축 관련 물품 구입 예산 부족
- 전시·연구 등 미술관 사업에서 미술 자료의 활용이 낮았고, 높은 가치에 대한 공유가 미흡하여 미술 자료 확보 초기 단계

□ 향후 제주도립미술관 미술 자료 아카이빙 구축 계획

- 수집: 미반입된 자료 파악 및 제주 작가 및 미술 단체 자료 조사 철저, 타기관 소장 제주 작가 관련 미술 자료 수집 추진
- 관리: 제주도립미술관의 발간·수집 자료에 대한 미술 자료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관리
- 서비스: 도내 최대규모의 미술 자료가 수집된 제주도립미술관 자료실 특성을

살려 연구자 대상으로 선공개 후 아카이브 진행에 따라 일반인 대상 열람 서비스 추진

4. 미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에 대한 의견

□ 제주 작고 작가 아카이브 전시 추진

- 전시기간: 2023. 8.~11.
- 전시공간: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2
- 전시내용: 제주 작고 작가 아카이브 전(고성진, 장희옥, 양인옥, 홍정표 등)
- 기획의도: 2022년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사업 결과 보고, 제주 원로작가 회고전 개최로 제주 현대미술의 역사를 작품·미술 자료로 되짚어보는 전시

□ 제주도립미술관 자료실 온라인 열람 서비스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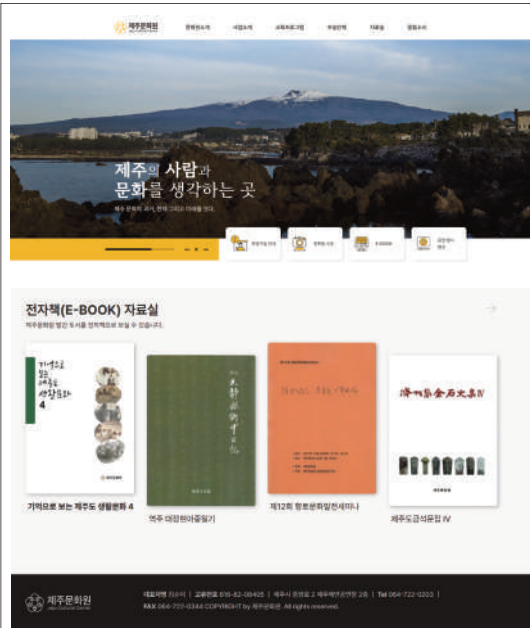
- 제주도립미술관 자료실 소장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아카이브의 활용률을 높이고, 제주도의 미술 자료 허브로 활용되기 위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 시범 운영

〈제주문화원〉의
발간 향토사료 DB화 현황

제주시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

1. 제주문화원 발간 도서 및 자료집

이북 제작, 홈페이지 공개(단, 인쇄 불가)
제주사료 86권(번역문 포함), 기관지 38권(신문 포함), 보고서·세미나자료집 17권
※ 붙임 1. 제주문화원 발간 도서 목록
※ 재발간(개정)의 경우, 최근 것으로 게시함.



제주의 사람과 문화를 생각하는 곳

전자책(E-BOOK) 자료실

가게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4

제주 내장현마을일기

제12회 향토문화발전세미나

제주도관식물집 IV

전자책(E-BOOK)

제목	제주사료	기관지	자료집
저자	김영선 외	김영선 외	김영선 외
발행년도	2021	2021	2021
페이지	45	19	14
파일명	가게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 4	제주 내장현마을일기	제12회 향토문화발전세미나
파일형식	PDF	PDF	PDF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재개편중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자료실-전자책(e-book)

※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10월 중

2. 제주문화원 영상제작물

- 1) 1950년대 ~ 1980년대 제주생활문화 다큐멘터리(2020 ~ 현재)
- 2) 1950년대 ~ 1980년대 제주생활문화 관련 구술 영상(2021 ~ 현재)
 - 홈페이지 목록 공개
 - 본원 생활문화해설사파견 사업 관련, 영상 출연진의 초상권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기관(단체)에서 영상 상영을 신청하면 해설사들이 해당 장소로 찾아가 영상 상영 및 해설함(질의응답).

※ 붙임 2. 제주문화원 영상제작물 목록



홈페이지-자료실-영상콘텐츠
- 제주생활문화 다큐멘터리 2편



홈페이지-자료실-영상콘텐츠
- 제주생활문화 구술영상자료집 15편

※ 붙임 1. 제주문화원 발간 도서 목록

2022년 2월말 기준

순번	책명	저자	역자	발간 연도
1	濟州市 옛 지명			1996
2	續陰晴史(속음청사)	김윤식	김익수	1996
3	知瀛錄(지영록)	이익태	김익수	1997
4	丙子日錄(병자일록)		김익수	1997
5	文學속의 濟州-詩選集(시선집)	정지용 외		1997
6	修信使記錄(수신사기록)	김기수 외	김익수	1998
7	濟州女人像(제주여인상)		홍순만 외	1998
8	文學속의 濟州-時調選集(시조선집)	이은상 외		1998
9	文學속의 濟州-小說選集(소설선집)	곽학송 외		1999
10	文學속의 濟州-隨筆選集(수필선집)	계용목 외		1999
11	南遊錄 達告辭 耽羅別曲 訓民篇 (남유록 달고사 탐라별곡 훈민편)	박지원 이정무 정언유 양현수	김익수	1999
12	20世紀 제주인명사전(20세기 제주인명사전)	김찬흠(편저)		2000
13	老橘詩集 禾菴詩集(노굴시집 화암시집)	김협 신흥석	김익수	2000
14	옛 사람들의 漢拏山記(등한라산기)	임제 외	김봉옥	2000
15	南槎日錄(남사일록)	이증	김익수	2001
16	蘆峯文集 卷一, 詩集(노봉문집 권1, 시집)	김정	김익수	2001
17	濟州史人名事典(제주사인명사전)	김찬흠(편저)		2002
18	朝鮮襄興勝覽-濟州道篇(영인본) 조선환어승람-제주도편	이병연 외		2002
19	徐福集團과 濟州島(서복집단과 제주도)	홍순만		2002
20	蘆峯文集 卷二· 三· 四(노봉문집 권2, 3, 4)	김정	김익수	2003
21	增補耽羅誌 영인본(증보탐라지)	담수계(편저)		2004
22	增補耽羅誌 수정본(증보탐라지)	담수계(편저)		2004
23	革菴散稿(혁암산고)	김형식	오문복	2004

순번	책명	저자	역자	발간 연도
24	農隱文集(영인본)(농은문집)	김문주		2004
25	譯註 增補耽羅誌 (역주 증보탐라지)	담수계(편저)		2005
26	제주항일인사실기	김찬흠(편저)		2005
27	謹齋北學日記(근재북학일기)	김균배	오문복	2005
28	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	강재언		2005
29	靜軒瀛海處坎錄(정헌영해처감록)	조정철	김익수	2006
30	재일 제주도 사람의 타향살이	고선희		2006
31	白首餘音(백수여음)	김경중	백규상	2006
32	譯註 濟州古記文集 (역주 제주고기문집)	김정 임제 이건 신광수	김일우 외	2007
33	일본으로 돈벌이 간 제주도사람	고선희	고성중	2007
34	下加里所藏古文書(영인본)(하가리소장고문서)			2007
35	新興里誌(신흥리지)	김정탁 외		2007
36	譯註 南槎錄 上(역주 남사록 상)	김상헌	홍기표	2008
37	浮海文集 I (부해문집 I)	안병택	오문복	2008
38	譯註 南槎錄 下(역주 남사록 하)	김상헌	홍기표	2009
39	浮海文集 II (부해문집 II)	안병택	오문복	2009
40	葵窓集(규창집)	이건	김익수	2010
41	제주신화집 1	김순이 문무병 양영자		2010
42	續陰晴史(속음청사)	김윤식	김익수	2010
43	知瀛錄(지영록)	이익태	김익수	2010
44	제주신화집 2	김순이		2011
45	제주전설집 1	이석범		2011
46	제주신화집(국문판)	김순이		2012
47	Myths of Jeju Island(영문판)(제주신화집)	김순이	송필순	2012
48	濟州神話集(일본어판)(제주신화집)	김순이	양성중	2012

순번	책명	저자	역자	발간 연도
49	Myths of Jeju Island(제주신화집)	김순이	송필순	2012
50	제주전설집 2	이석범		2012
51	濟州神話集(중국어판)(제주신화집)	김순이	왕엽	2013
52	浮海文集 III(부해문집 III)	안병택	오문복	2013
53	사연따라 七百里(칠백리)	홍순만		2014
54	海隱文集(해은문집)	김희정	백규상	2014
55	제주생활문화100년	김봉오 외		2014
56	浮海文集 IV(부해문집 IV)	안병택	오문복	2015
57	譯註 耽羅紀年(역주 탐라기년)	김석익	홍기표 외	2015
58	국역 증보탐라지	윤시동	김영길	2016
59	제주의 편액	홍기표(편저)		2016
60	譯註 耽羅錄 上(역주 탐라록 상)	이원조	백규상	2016
61	譯註 耽羅錄 中(역주 탐라록 중)	이원조	백규상	2017
62	譯註 耽羅紀年(역주 탐라기년)	김석익	홍기표 외	2017
63	제주도 명승		오문복(편역)	2017
64	濟州島金石文(제주도금석문)	백규상 외		2017
65	제주城南 역사인물 읽고 찾고 그리다	김원순 외		2017
66	4·3과 인물	김관후		2018
67	譯註 耽羅錄 下(역주 탐라록 하)	이원조	백규상	2018
68	함께 만드는 마을지 1 용수리	홍기표 외		2018
69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생활문화 1	양정희 외		2018
70	濟州島金石文集 I (제주도금석문집 I)	백규상 외		2018
71	4·3과 인물(증보판)	김관후		2019
72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생활문화 2	서근숙 외		2019
73	譯註 知瀛錄(역주 지영록)	이익태	김익수	2019
74	譯註 耽營官報錄(역주 탐영관보록)	이원조	백규상	2019
75	함께 만드는 마을지 2 교래리	문경미 외		2019

순번	책명	저자	역자	발간 연도
76	함께 만드는 마을지 3 어음1리	이창훈 외		2019
77	濟州島金石文集 II (제주도금석문집 II)	백규상 외		2019
78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생활문화 3	김정숙 외		2020
79	사진자료집, 共感 5080	서근숙 외		2020
80	역주 제주읍지		백규상	2020
81	濟州島金石文集 III (제주도금석문집 III)	백규상 외		2020
82	함께 만드는 마을지 4 장전리	유승희 외		2020
83	譯註 大靜縣衙中日記(역주 대정현아중일기)	김인택	백규상	2021
84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생활문화 4	전영천 외		2021
85	濟州島金石文集 IV (제주도금석문집 IV)	백규상 외		2021
86	함께 만드는 마을지 5 수산리	문창선 외		2021

※ 붙임 2. 제주문화원 영상제작물 목록

※ 붙임 2. 제주문화원 영상제작물 목록

2022년 2월말 기준				
번호	구분	성명	제목	제작 연도
1	제주생활 문화 다큐 멘터리	제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회	그때 이추록	2020
2		제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회	훈디의 가치	
3	제주 생활 문화 구술 영상 자료집	양정희	1940~80년대 산북 결혼풍속	2021
4		전영천	1956~1960년 여름 삼양해수욕장	
5		서근숙	1965년 제주성안 새댁의 신혼 이야기	
6		김정숙	1965년 조천읍 신촌리 장 이야기	
7		박승석	1965년 한경면 신창리 식계	
8		한영자	1969년 서귀포 여중생의 한라산 등반기	
9		고미선	1960년대 산지천과 동문로터리	
10		한영자	1960년대 서귀포국민학교 운동회	
11		장호인	1960년대 애월리 국민학교 4학년생의 물질	
12		유태복	1960년대 제주성안 동문로터리 h구르마	
13		고정은	1960년대 제주시 중산간 사평마을 멧질 이야기	
14		박문헌	1960년대말 추자도 뿔 이야기	
15		유태복	1960~1970년대 제주시 동문로터리 슈사인보이	
16		김원순	1979년 제주시 신식 결혼식	
17		고일수	1970년대 제주시 중산간 용강마을 '쇠(牛)' 이야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제언

제주문화예술재단 **고희송** 팀장

1. 예술아카이브 동향

- 1980년대 커뮤니티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 2000년대 후반 참여형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 등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시민들에 의한 아카이브를 통해 지역 정체성 주목
- 예술가와 단체의 예술활동 기록은 물론이고 문화예술기관이 생산하는 사업 기록에 대한 활용을 위한 내부 요구 확대
- 지역 정체성이 담긴 지역 아카이브 구축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육-수집-생산의 기여 선순환 구조 전환
-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디지털아카이브) 확대

2. 아카이브 구축 현황

□ 원로예술인 DB 구축사업

- 사업목적
 - 자료의 단순 수집·보관의 형태에서 공개·배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을 통해 제주 예술의 가치 확산
- 사업기간: 2018년~2021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삭감)

○ 연도별 추진현황

구분	추진실적								비고	
2018	○ 3인 예술인 대상 구술채록문 등 발간								발간사업	
2019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5명								2018년도 구술채록 예술인 3인 중복 포함	
	구분	작품				관련자료				합계
		시	조각	사진	그림	관련사진	평론/총평	논문		
	5인	320	267	206	450	82	16	1		1,342
2019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4명									
	작가	작품		한글자료		기타자료		합계		
	4인	954		49		1,080		2,083		

※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정보 : 관리자페이지 만 개설 중

□ 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

- 사업목적
 - 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송당 마을 4대 제일(祭日) 재현을 통해 마을곳의 원형을 보존(계승)하고 전승 주체인 마을 주민의 전승 의욕 고취
- 사업장소: 송당리 본향당 일대
- 기록형태: 영상DB
- 연도별 추진현황(※ 코로나19로 일부 행사는 취소)

연도	신과세제	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곡대제
2020	-	행사취소	기록완료	기록완료
2021	기록완료	기록완료	행사취소	기록완료
2022	기록완료	-	-	-

3. DB구축 사업의 문제점

<원로예술인DB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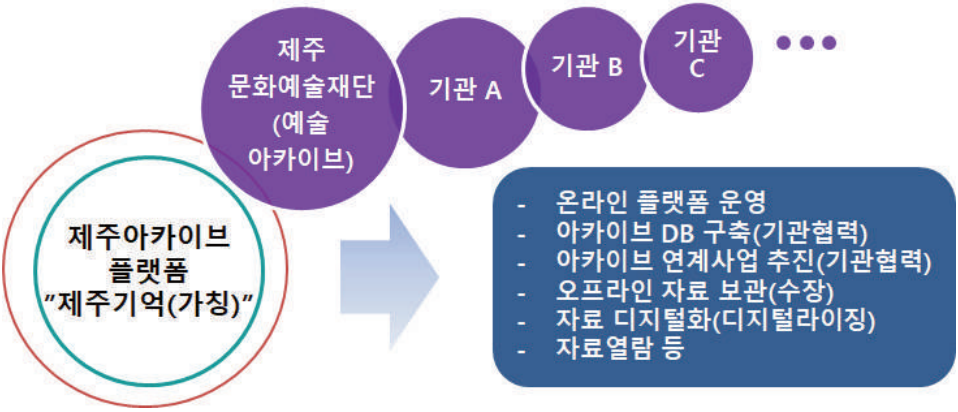
- 1) 지원사업(원로예술인회고지원)의 결과물과 원로예술인DB구축사업의 연계 진행 어려움
 - 아카이브 대상(콘텐츠)에 대한 제주예술사적 가치 입증이 어려움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직접사업으로 추진해야함
 - ⇒ 지원사업(원로예술인회고지원)과 원로예술인DB구축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운영 필요
- 2) 원로예술인의 저작권 활용 동의 어려움
 - 축적한 아카이브의 2차 활용에 대한 동의에 비협조적임
- 3) 일반 사업비로는 온라인 원로예술인 DB 구축, 서버 유지비 사용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짐
 - ⇒ 재단 고유 목적사업으로 설정하여 출연금으로 추진해야 함

<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

- 4) 도 무형문화재 송당리마을제는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촬영으로 제작된 영상 기록물로서 영상DB의 특성상 용량이 크고,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재단 내 전문 데이터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데이터 유실 위험 우려가 있음

4. 제안

- 1) 제주도의 지역, 문화, 행정, 역사기록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조직 신설 필요



- 온라인 플랫폼 사례) 경기도메모리: <https://memory.library.kr/main>
- 2) 기관사와 기관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기록·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아키비스트 등 정규인력) 배치 제도화

〈제주4·3평화재단〉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제주4·3평화재단 조찬양 기록관리사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 1) 2000년~2003년 :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 2) 2001년~현재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요청서
- 3) 2008년~현재 : 제주4·3 희생자 유해발굴 유류품, 유족 기증품 등
- 4) 2008년~현재 : 제주4·3평화재단 4·3기념사업 진행간에 생산·수집자료(증언채록, 사진자료 등)
- 6) 2019년 미국(NARA, 맥아더 기념관 등)자료 수집
- 7) 2022~2023년 : 4·3중앙위원회('22. 3. 14.) 조사계획 최종의결에 따라 자료수집 진행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국가기록원, 미국기록관리청 등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

- 1) 2017년 9월 26일 제주4·3아카이브 공식 오픈
- 2) 2019년 제주4·3아카이브 4·3관련 신문자료 등록사업 추진
- 3) 2021년 제주4·3아카이브 개선 사업 추진
- 4) 제주4·3평화기념관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제주4·3 주제의 각종 기획전시 등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 1) 기관장, 사업 담당자(재단 최근 3년간 3명 변경)의 잦은 변경과 소관부서의 변경, 예산의 한계와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업의 경향이 있음
- 2) 과거 2000년대 수집자료 대부분에 대한 기록물 기술서 부재로 인한 활용도가 떨어짐
- 3)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대한 범위설정이 어려움, 희생자 당사자가 공개를 동의하였으나 연관된 제3자와 관계 문제로 민원에 대한 고충
- 4) 원본 소장처의 공개거부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수집은 하였으나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
- 5) 2022년부터 시작된 제주4·3 추가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활용도, 수집과정에서 작성된 기술서 등을 활용한 공개 추진

4. 제주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1) 우수사례 벤치마킹, 신규 콘텐츠 기술 등 공유의 장 마련 필요
- 2) 각 기관별 역할설정에 따른 수집전략 수립 및 자료 공유
- 3) 관련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고희관** 팀장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 1) (2018) 제주도시재생 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연구(아카이브랩)
 - 2) (2018) 제주시 원도심 노포 실태조사(왓집)
 - 3) (2019-2020) 원도심 과거사진 아카이빙(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회)
 - 4) (2021) 제주시 원도심 관련 슷 사진·영상 아카이빙(센터)
 - 5) (2018-2020) 주민생애사 구축사업(센터)
 - 6) (2018) 원도심 주민생애사 팟캐스트 방송(오디오) 및 대본집(탐라디오)
 - 7) (2017-2022)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센터)
 - 8) (2019) 제주성 가이드맵
 - 9) (2019) 제주시 원도심 마중물 지도
 - 10) (2019) 제주관련 책자들 기증(강문규)
- 기타 등등(내부 파악 중)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

- 1) (2019-2020) 원도심 과거사진 아카이빙 사진 액자 172점(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회)
- 2) (2019) 제주책방에 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강문규님 책자 1002권 기증

- 3) (2018) 원도심 주민생애사 팟캐스트 방송(오디오) 및 대본집(탐라디오)
- 기타 등등(내부 파악 중)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 1) 센터장(2년 임기) 등 리더의 관심사에 따라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도,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산의 한계로 사업이 조정될 때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업이 아카이브·홍보 관련 사업인 경향이 있음. 지속가능한 아카이브 및 연계 의지가 필요
- 2) 전임 센터장 체제에서 발굴된 자료들이 현 체제에서 발전 연계가 어려움. 또한, 구성원의 잦은 퇴사, 인사이동, 아카이브 및 자료 관리 업무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내부에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
- 3) 2023년에는 내부 자료 파악 및 활용하여 콘텐츠 재생산, 활용 구상

4. 제주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의 목적·특성 상 자료의 수집 및 콘텐츠 생산까지는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데, 콘텐츠의 생산 이후 활용계획이 부족하고, 아카이브 관련 담당 업무가 편재되지 않아 관리가 요원함. 센터 수장고 내 잠자는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중심이되어 아카이브 구축을 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제주에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청년층에서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됨. 일상에서의 아카이빙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홍보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조성원** 담당자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 도내 172개 행정리, 62개 법정리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 자료 정리 등
- 제주도 내 282개 마을(읍·면지역 행정리 172개, 동지역 자연마을 110개)에 대한 일반현황 2~3년 기간으로 자료 정리 등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리 및 법정동의 가구수 및 인구 현황
- 매년 중앙부처 예산안 및 사업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 관련 등의 정보는 거의 모두 보유 중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

- 따로 아카이브 구축 사항은 없음
- 넓은 의미의 아카이브라면 센터 사업에 따른 데이터 정리 및 위에 자료들을 정리한 자료 정도로 생각함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 자료의 정확성 파악을 위해 투자되는 시간이 많음
- 행정의 공식적인 자료도 검토하였을 때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수정하는 부분이 많음

- 수집한 자료에 대한 개념 또는 지식이 없을 경우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파악할 수 없음
-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함
- DB화 및 아카이브에 따른 다양한 양식과 최적의 약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함

4. 제주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자료가 행정 소유에 있는 경우 자료 공유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 도 자치행정과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음
- 도 홈페이지와 연계하면 공유 및 공개서비스는 편할 수도 있음
- 수요자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루트에 데이터를 배포하고 모든 자료는 한곳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 좋을 것 같음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서귀포문화도시센터 **이광준** 센터장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아카이브

- ※ 서귀포 고유의 지역문화자산을 ‘노지문화’로 정의
- ※ ‘노지문화’ 발굴 → 아카이빙 → 콘텐츠화 과정을 통해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을 아카이브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 ‘노지문화’ 관련 자료 수집 현황

추진사업	추진목적	2021 추진결과	2022 추진현황
휴먼라이브러리 영상	지역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영상 아카이빙	영상 11건(11명)	영상 5건(7명) 도감, 우장 기술자 등
휴먼라이브러리 그림이야기책	마을삼촌들 삶의 역사를 스스로 그림이야기 제작	책출판 5종 (5명)	책 출판 1종
서귀포미래문화자산 시민제안	노지문화 보존·활용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캠페인	최종 16개 문화 자산(유형 선정)	(상시 접수 중) 16건(34개)
날마다 제주어 일력	UNESCO 소멸위기 제주어 보존 및 활용 (도내 초중학생 및 시민 제주어 교육자료)	도교육청 등 2,000부 제작	제작 중

추진사업	추진목적	2021 추진결과	2022 추진현황
노지문화탐험대	노지문화 주제의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021년~2022년 지속운영되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아카이빙 진행(하천탐사대, 포구 탐험대 등) 탐사 기록물 발간	
마을별 문화권별 문화계획 수립	문화실태 기초조사 및 주민 주도 생태문화마을을 위한 문화계획 수립 지원	(성읍1리) 스토리 맵핑:50여건	
		(대포마을) 사진 아카이빙:1675건(책록 23건, 음성 58건, 기타 246건)	
		(신풍리) 마을문화, 공간, 공동자원 등 아카이빙 진행 예정	

※2021년 휴먼라이브러리 대상자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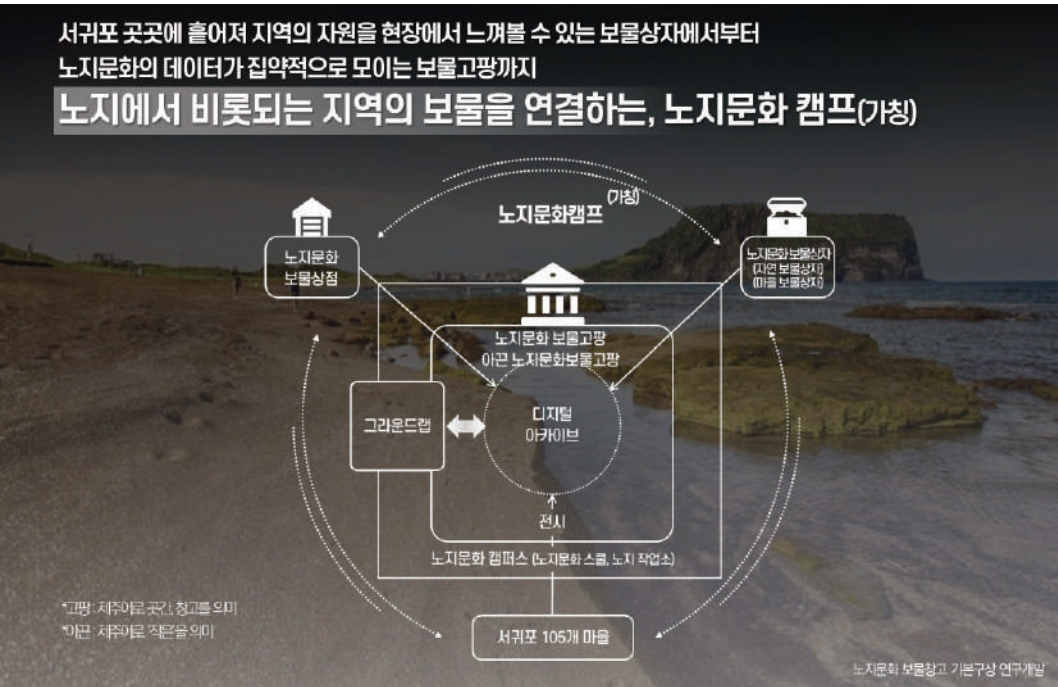
	성함	출생	스토리
1	고00	1938	소를 키웠던 제주 목동 ‘쇠테우리’
2	고00	1929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서귀포 90년 ‘감귤농사 1세대’
3	김0	1928	한 평생 밭에서 부른 제주 전통 노동요 ‘밭볼리는 소리’
4	고00	1935	어머니 물질을 위해 열다섯부터 만들던 ‘테왁망사리’
5	윤00	1930	90세 원로 교육자의 ‘근대 역사문화 기억’
6	조00	1936	비석을 만들기 위해 직접 돌을 캐고, 손으로 깎았던 ‘비석장’
	고00	1939	비석에 한자 한자 글을 새기던 ‘각자장’
7	현00	1930	강화도, 독도 등 바다와 함께했던 ‘80년 해녀’
8	김00	1938	제주도민의 삶에 녹아든 ‘전통 멍석 공예’
9	강00	1954	가시리 마을과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속신앙 ‘당문화’
10	송00	1943	50년 불밋간을 지켜온 ‘제주 대장장이’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현황 - 홈페이지: www.nojiculture.kr

추진사업	추진목적	추진현황
디지털 문화 플랫폼	문화도시 사업 아카이빙	미디어자료 68건 발간자료 21건(pdf) (가시리 당 포함)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노지문화 보물창고] : 노지문화 콘텐츠를 시민(미래세대 중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노지문화 보물창고’ 기본구상 연구개발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의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김영진 대표

1. 현재 제주(우도) 관련 수집 자료 현황

우도 전반의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는 형편은 못 된다. 주로 근대화, 산업화 시기의 우도 어른들의 생활상을 집집마다 보관된 사진첩의 사진 자료들을 스캔 작업을 통해 모으고 있다. 간간이 마을신문 지면에 소개될 내용을 중심으로 음성과 영상으로 남기고 있지만 아직은 DB를 구축할 여력이 없다.

2. 제주(우도)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

-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 1-14호 발행
- “섬에서 태어나 바람으로 돌아가다” 사진 전시, 2020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 공간 부재로 인해 자료를 펼쳐 놓고 논의하며 정리하기가 마땅하지 않다.
-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예산, 인력 등을 갖출 여력과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함.
-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기사마다 취재 과정을 자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함.
- 1년에 한두 차례만이라도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장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함.

4. 제주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 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활동 단체 및 지역에 공간과 인력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학술, 전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들과 만나는 장을 연출.
- 지역 아카이브 단체들의 네트워크 마련.
- 앞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 마련.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의 자료수집과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미래 전망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고경대** 대표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瀾

- 1950~90년대 제주글 기록한 사진가 고영일의 사진을 전시하고 작품을 판매 홍보하는 사업을 하는 공간
- 고영일 사진뿐 아니라 가까운 옛 제주를 기록한 사진가의 작품을 발굴, 전시소개, 도록 발간
- 가까운 옛 제주의 작품에 지금의 기록을 이어붙이지 작업을 하는 작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사업 cf) 〈○○○ 사진 따라하기〉프로젝트, 〈이추록 변헌 거 보임수과?〉
- 소재지: 제주시 건입로 11(동자복 바로 옆)

1. 현재 제주 관련 수집 자료 현황

1) 사진가, 언론인 고영일

- ① 1950~90년대 사진작품필름 2만 여 점 중 제주 관련 8천 여 점(제주 사진으로 확인된)
- ② 1950~90년대 사진 오리지널 작품 200여 점(작가가 직접 인화 프린트한 작품들)
- ③ 고영일 사진+언론 관련 발간 책자 6종(사진집, 사진평론집, 언론사설집 등)과 미발간 원고 3종(원고지 상태 사진관련 번역원고)

- ④ 2021-22년 큰바다영 4회 전시 팸플릿 4종, 전시자료, 전시동영상 다수
- ⑤ 고영일 개인 삶 관련 사진과 편지 일지 메모 다수(추가 발굴 필요)
- ⑥ 고영일이 사용한 사진도구: 카메라 8대, 렌즈 다수, 확대기, 현상 인화 작업 도구들
- ⑦ 미발굴: 사진작품 소장처 목록, 관련인사의 고영일 기억 인터뷰 등등 작가 아카이브에서 필요한 자료 수집이 과제

2) 사진가 ○○○ 사진

- ① 1980-90년대 제주사진 2천 여 점 슬라이드 필름(작품 확보, 미정리)
- ② 1980년대 사진전 팸플릿 1종

3) 사진가 △△△ 사진

- ① 고영일 1980-90년대 제주사진의 같은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을 기록한 작품 1천 여 점(디지털 파일)
- ② 책자 1종(사진집)
- ③ 5회 전시 팸플릿, 포스터, 전시 관련 사진, 동영상
- ④ <사진 속 제주 다시보기> 공영방송 프로그램 출연 동영상 클립과 방송원고

2. 제주 관련 아카이브 구축 현황→작품의 digitalize 현황

1) 사진가, 언론인 고영일

- ① 1950~90년대 사진작품필름 2만 여 점 중 제주 관련 8천 여 점(제주 사진으로 확인된)→필름 스캔 완료
- ④ 2021-22년 큰바다영 4회 전시 팸플릿 4종, 전시자료, 전시동영상 다수(디지털 파일)

3) 사진가 △△△ 사진

- ① 고영일 1980-90년대 제주사진의 같은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을 기록한 작품 1천

여 점(디지털 파일)

- ② 책자 1종(사진집)
- ③ 5회 전시 팸플릿, 포스터, 전시 관련 사진, 동영상
- ④ <사진 속 제주 다시보기> 공영방송 프로그램 출연 동영상 클립과 방송원고

3. 현재 자료의 DB화 및 아카이브 구축의 애로사항과 한계점, 발전 계획

- ① 소장작품 데이터 정보 DB→일부 아날로그 형태, 미완
- ② 아카이브 구축→비용, 전담자 없음
- ③ 작가의 Art Archive 구축 필요성만 인식 중

4. 제주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공유, 공개서비스 등에 대한 의견

- ① 아카이브 구축: 공기관의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 목적 분명히 하고 공동으로 사업 방향 설정 필요→사업의 일관성, 전담자 교체, 예산의 우선순위, 작품을 정보로만 바라보는 인식 차이 해결 등→자료의 부단한 수집: 자발적 참여와 각 마을 등 자료 생성원과 긴밀한 연결 체제 구축 등
- ② 공유: 공기관 간 공유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에 대한 인식 공유, 공유할 접점의 모색 등을 합의한 후 MOU 체결→각 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아카이브 소스에 대한 전문성 인정과 각각의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접점 모색 궁극적으로 아카이브 포털 구축을 위한 각 전문기관간의 접점 공유 가능성 타진
- ③ 공개 서비스: “그곳에 가면 제주 인문학의 모든 것을 안내, 소개받을 수 있다+참여도 가능하다” 저작권 관리 혹은 관리 위탁

〈상모리〉의 마을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대정읍 상모리 **강성모** 이장

저는 대정읍 상모리에서 태어나서 60여 년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격은 옛것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없이 30년 가까이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에 대정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 센터’ 개관에 앞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적 및 문화 발굴과 공동체를 복원하여 전승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던 차에 지난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시행한 ‘제1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그동안 모아온 조그마한 자료들의 소중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4-H와 야간학교 관련 사진과 마을 공동체 문화(제1회 방어축제, 대정읍 종합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 경로잔치, 결혼식 문화 등) 테이프 영상물을 USB로 복원하여 이를 토대로 각 부문별 관계자분들을 섭외하여 10여 차례 마을 방송국에서 영상물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그마한 책자 ‘상모리를 기록하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이라 용기가 없었지만 처음부터 어렵고 거창한 역사자원이 많은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많은 분량의 책자를 욕심 부렸다면 아직 시작도 못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창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기록하고 사라져가는 소소한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으나 먼 훗날 빛나는 보석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

1. 제주학 아카이브 현황

-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운영 및 자료 수집
(2022년 9월 현재 52,000여 건)
 - 제주학 자료 대도민, 대국민 서비스 (2014. 3. 7. 개설)
 - 2022년 9월 현재까지 방문자수 323,936명(매년 4만여 명 방문)
- 중점 자료 수집 및 자료 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공개(2014 ~)
 - 제주학 아카이브 사진영상 공개수집 사업(2020 ~ 현재)
 - 2020년: 제주의 마을제
 - 2021년: 제주의 관혼상제
 - 2022년: 우리 마을 옛사진
 - “제주의 마을지” 기록화 사업(2022)
 - 오프라인 페이퍼본과 디지털 PDF본 수집 및 기록화
 - 제주의 마을지 D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2023년 예정)
-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개설 및 운용
 -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과정 개설(2021)
 -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 및 기초과정 개설(2022)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기록자로 자리 매김
→ 시민 참여형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완성

2. 제주학 아카이브 미래 전망

-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관련 기관 및 도민 참여도 확대
 -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도민 기록가’ 양성과 활성화
 - 제주의 마을제, 관혼상제, 마을지 등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컬렉션 콘텐츠 개발 및 공개 서비스 실행 및 활성화
- “제주학 포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제주학 포털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통합적 검색이 이루어지고 그 검색 결과와 각 기관의 아카이브 자료가 링크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 향후 지속적인 제주학 아카이브 기관 및 단체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포털 아카이브 사이트 구축을 실현해나갈 예정임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발행인	김순자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발행일	2022년 10월 4일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제2회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학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